

'총학생회칙 개정 학생총투표 발의에 부치는'

연세문학회 게릴라 문집

봄,
화르티장

꽃 그려 새 움터 놓고
지리산 골짜기로 떠났다는
소식

연세
문학회

■ 위으며

새학기가 시작하고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 4월이다. 교정 곳곳에 꽃잎이 떨어지는 모양이 꽤 보기 좋다. 그러나 지상의 꽃잎이 메탈라 썩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더럽고 보기 싫은 것을 너무 쉽게 외면하고 만다.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부터, 학생사회 여기저기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들이 피어나고 시들곤 했다. 이례적으로 울림이 큰 목소리들도 많았지만 곧 졸렬한 싸움으로 치부되어 사그라지곤 했다. 그리고 불온한 언어라도 되는 양, 그 문제를 입에 담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귀를 닫고 입을 막았다.

일본의 문학 평론가 가라타니 고진은 “문학이 윤리착지적인 과제를 짊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는 시대는 기본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그 그림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말은 현재 학생사회에서 문학을 하고 글을 쓴다고 일컬어지는 이들을 살펴보았을 때 틀림이 없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좋다. 우리는 다시 펜을 들어 저마다의 언어로 그 ‘그림자’를 쫓거나 밟아낼 것이다. 떨어지는 꽃잎의 잔영을 끝까지 응시하여 마침내 그 실체를 움켜질 것이다. 그것이 설령 처참하게 메탈라 썩어가는 것일지라도…….

2007년 4월

차 례

시

이대범

페니실린 쇼크 / 4

이중원

血辯으로서의 혈변 / 6

지현정

돼먹지 않은 / 8

차영서

前輪驅動의 Monology / 9

산문

곽승희

마법사가 되는 법 / 13

김슬아

일반학생 중 어떤 학생A, 혹은 문학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사람A의 어떤 목소리 / 19

이명현

총학 규탄에 관한 연세문학의 팜플릿에 부쳐 / 22

정용경

한 새내기 의 목소리를 내자면 / 24

활인

변신하는 순간의 세일러문을 노려라 / 27

시

페니실린 쇼크

이대법

내가 살아온 것은 거의
기적적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곱팡이 피어
기형도 '오래된 書籍' 중

창문에 매달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감기 중이고
벚꽃 축제가 열린다는 윤중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 한구석은 곱팡이로 얼룩져 있고
노크 소리에 새벽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방바닥은 지치고 의자는 피곤합니다

페니실린 두 알이 식도를 지나고
기울인 주전자에서 홍차가 흐릅니다
당신의 말은 박제된 구름처럼 달콤합니다

푸른곱팡이가 내장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래바람 이는 언덕에 검은 차도르를 두른 여인이 춤을 추고
꿈을 이고 가는 낙타가 달빛을 뚜벅뚜벅 걸습니다

가슴이 강한 열기로 출렁입니다
밤늦게 새벽이 오려나 봅니다
제가 살아온 것도 죽어가는 것도 거의 기적입니다

* 총학이 추진하는 이번 총투표가 참 달콤한 것 같으면서 위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血辯으로서의 현변

이중원

1. 입영통지서

제 18 호 (육군 징집병) 입영통지서			
성 명	X 중 우	주민등록번호	061201-2181818
세대주성명	최 X X	관 계	본인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병 적 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총장공관		
입영부대	평양부대 (북파공작(특수사기심리전))		
입영일시	2007년 04월 30일 08:30		
모이는장소	평양시		
병역법 제20조의 규정과 세계적 상식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강제징집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2007년 4월 13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관인생략			
※ 강제징집입영 여비 및 위로금 혹은 장례비(₩ 0원)는 입영한 사람에 한하여 현역병지원시 신고한 개인별 계좌번호로 입금 (입영 후 15일 이내)됩니다.			

2. 이것은 시가 아니다

회장님, 우리들의 회장님. 개똥도 약으로 쓰이기도 한다는데, 회장님의 똥은 도무지 쓸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똥 좀 치워 주십시오. 이 따위 저질쇼가 시에 언급된다는 것은 시에 대한 모독이고 이건 시도 아니지만, 본인은 본인의 이름도 더럽히고 시도 더럽히더라도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똥짓 그만하고 속히 군대나 가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은 회장님과 같은 최고의 인재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정신적 사유로 인하여 면제를 받으셨다면 재검을 받아도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탄원서를 모아서 국방부장관에게 발송하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까. 가자, 가자. 꽃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군대)에 가자. 헤어지자, 우리들 서로 말없이 헤어지자. 달빛도 기울어진 산마루에 낙엽이 우수수 흩어지는데 산을 넘어 사라지는 너의 긴 그림자 슬픈 그림자를 내 뺨싸게 잊으마.

돼먹지 않은

지현정

햇빛이 내려앉는 교정은 어두침침하다
6년간의 환상은 무참히도 산산조각났다
아무도 더 이상 꿈 따위는 묻지 않았다
남은 것은 분노 혹은 좌절 아니면 그 경계선 어딘가
제 꿈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은 모두에게 침묵의 재갈을 물리는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명언을 실천하시는
그대들이야말로 선비고 열사이시오
절규하며 뛰쳐나간 그 옛날의 누군가는
빗발치는 검은 햇살에 몸이 꿰뚫렸다면
기형도 선배님은 나무 아래에서 책이라도 읽으셨다면,
그러나 내가 몸 누일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저 건너 흥기될 백양나무잎 하나 없는 백양로 너머에도
진정한 위인들은 발 끝에 차여 나뭇구는 가랑잎들 같은 것
무기력감은 푸른 담쟁이덩굴처럼 싱그럽게 내 몸을 감았다
돼먹지 않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뿐이다.

봄비가 따갑다 못해 비수처럼 쏘인다.

前輪驅動의 Monology

차영서

길을 가다
놈의 목 언저리엔
괴이한 머리가 두 개
고로 혀는 두 개
눈알은 네 개
시뻘건 쌍두사(雙頭蛇)를 만났다.

놈은 몸을 곧추세우고
아주 먼 옛날
두 선남선녀를 피어내었던
삼지창(三枝槍)같은 혀를 휘둘렀다.
명백한 前輪驅動
천벌을 받아 머리가 갈라지었던

이글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끈적거리는 몸통을 후비면서
네는 내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부끄러웠던 것이나. 아니면
선악과나무에서 내려온
너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너의 비늘 한 장에 아로새긴
어설픈 신성모독을 이기지 못하여
끝내는 後輪驅動이 되지 못하고
前輪驅動이 되어버린 너를 한하노라.
다리는 이미 없어져

꼬리가 되어버린

독어벽(獨語癖)이란
파리를 틀고 주저앉은 한 인간이
머리를 치고 몸통을 늘이고
끝내는 다리를 잘라
낫선 시선(詩選)을 토해내어
잇고 있던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과 쌍두사(雙頭蛇)의 만남은
우연이라 말할 수 없다.
그네가 본 풍경은
이전에 혹은
앞으로 볼

길을 가다
놈의 얼굴 언저리엔
파릇한 머리가 하나
고로 입도 하나
코도 하나
새파란 인간을 만났다.

놈은 머리를 하나 자르고
꼬리를 둘로 자르고
끝내는 하늘의 무게를 모르고
쓸데없는 광채(光彩)만을 발하는
명백한 前輪驅動
너의 조상이 바로 여기 있는데

後輪驅動은 눈이 없다.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우나
자라난 다리들이 천벌에 놀려 꼬리가 되어버린
나까지 부끄러워할 리는 없다.
숨기어도 너의 머리도
원래는 두 개이지 않았던가.

허나 後輪驅動의 기억은
차라리 前輪驅動을 그리워하노니
내가 두 입으로 너를 물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너의 자신만만한 두 눈 속엔

산문

마술사가 되는 법

곽승희

남자는 자신의 앞에 떨어져있는 종이를 주웠다. 허리를 피며 일어나니, 그가 조금 전부터 노려보고 있던 회갈색 성벽이 다시 그의 푸른 눈에 비쳤다. 성벽의 중앙에는 활짝 열린 쇠문과 그 앞에 서있는 무장 병사들이 서있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힘들게 걸어왔던 그로서는 당장에라도 저 문을 통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도로 첫 상경하는 시골 촌놈의 민망함이랄까, 뭔가 간지러운 느낌에 그는 일부러 길 한쪽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성문에 가까이 올수록 띄엄띄엄 떨어져 있던 종이에 눈길이 갔다. 슬슬 사람구경도 지겨워지고, 종이 뒷면에 슬쩍 비치는 글자도 궁금해졌다.

— 현 도제는…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게 뭐지?

남자가 한동안 쓰지 않던 문자를 소리 내어 천천히 읽었다. 지금의 도제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건가. 남자는 수도와는 거리가 있는 산골마을 출신이다. 따라서 지금 도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도제 장(長)을 뽑으러 갔던 마을 장로가 그녀를 칭찬 했다는 것뿐이다.

나라를 지탱하는 상위 열 명의 마술사와 마술사의 장(長), 그리고 그 마술사를 보좌하는 열 명의 도제와 도제의 장(長). 수도의 도제 조합에 소속돼있는 도제는 자격 조건에 따라 마술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통과하는 이는 하위 마술사로서 왕국에 소속돼 일을 하게 된다.

나라를 운영하는 마술사와 도제가 되는 일은 그야말로 출세의 지름길로써, 남자 역시 한때는 도제를 꿈꾸지 않았던가. 그러나 마술사가 되기 위해선 이야기와 노래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별의 움직임과 물질의 흐름을 알아야 했으며, 전통 춤을 전수해주는 유연한 몸동작, 치료용 연고를 만드는 섬세한 손놀림을 가져야만 했다. 어떤 이들은 남성은 마술사가 되기엔 태생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 했지만, 남자는 믿지 않았다. 소년 때부터 장로의 집에서 오래 아이들과 함께 글자를 외우고 노래를 불렀다. 물론 남자는 뛰어난 재주를 갖추지 못했고, 중국엔 그의 아버지처럼

하는 양이다. 오히려 이것은 일반학생의 목소리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될 수 있어도, 민주주의 자체의 것은 아니다. 최대한 많은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방법이다. 그저 다수결에 묻히기에는 일반학생들의 웅성댐에는 여러 소리가 있다.

이렇게하면 이런 소리도 있다. 우리학교에는 여학생 휴게실은 있어도 남학생 휴게실은 없다. 사실 남학생 휴게실이 다른 학교에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은 없다. 때때로 남학생들은 투덜거린다. 여자애들은 여학생휴게실에서 잘 수 있는데, 우리는 잘 곳이 없다. 중도에서 엎드려서 자란 애기나, 혹은 복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학교를 해낸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고 보니 05년도, 신입생 시절에 남학생 휴게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짓는 중이라 했던 것 같은데, 2년이 지나고서도 소식이 없다. 그런데 왜 남학생 휴게실이 생기지 않는 걸까. 총여학생회 때문일까? 총여학생회가 있어서 여학생의 권익은 보호하고 남학생의 권익은 깎아 먹는 걸까? 그건 아닐 게다. 거칠게 말하자면 '총남학생회가 없어서'는 될 수 있어도, '총여학생회가 있어서'는 될 수는 없다. 총여학생회가 여학생 휴게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본 적 있어도 남학생 휴게실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남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힘들다면, 그런 '극단적인' 총여학생회의 책임은 아닌 것 같다. 마땅히 책임은 학생 복지에 신경 써야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쓰지 않고 듣지 않은 총학생회나 학교 당국에 있다. 웅성댐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만 밀어붙인 전 06년도 총학생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웅성거림을 대충 모아 이것이 일반학생의 목소리요, 라 주장하면서 다른 목소리들에게 '일반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한 책임'을 지우는 건 어딘지 잘못 되었다. 총여학생회의 목소리, 총여학생회의 문제제기는 어떤 여학생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덜어준다. 분명 총학생회 다이어리의 사진에 기분나빠하는 여학생도 있고, 새터나 O.T문화에 소외되는 여학생도 있다. 그런 소수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극단은 아닐 것이다. 물론 다수의 목소리가 묵살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다. 그런데 다수의 목소리를 살리는 방법이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분명, 문제다. (게다가 '어떤 여학생'들은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소수라 할 수 있어도, 수적인 면에서는 소수가 아니다.)

내가 일반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과연 '문

학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문학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정도라고는 할 수 있을게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문학이 어떤 목소리라면, 그리고 그 목소리가 보편이라는 칭호를 획득한다면, 그 보편은 단순한 웅성댐의 총합은 아닐 것이다. 보편의 이름으로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는 목소리 또한 아닐 것이다. 오히려 작은 목소리들을 보편의 자리로 끌어오는 것, 아니 목소리조차 못 내는 것들의 입이 되어주는 것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뚜렷하게 낼 수 없는 목소리일지 모른다. 그래서 묻는다. 그렇게도 쉽사리 뚜렷하게 쓰는, 자주 쓰는 보편과 일반학생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웅성댐의 총합을 끌어와서 일반학생이라 칭하는 걸까.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묻기 전에, 어디서 그들이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지, 자신을 일반학생 중의 어떤 학생A라 생각하는 나는 묻는다.

총학 규탄에 관한 연세문학의 팜플릿에 부쳐

이명현

여기서 뜬금없이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하려 한다. 그리고 문학의 이름으로—여기서는 문학으로부터 모인 사람들,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 말하려 한다. 지금 당장 문제시되고 있는 안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연을 하지 않겠다. 그냥 이 짝막한 글에 두서없는 밑그림을 잡았을 뿐이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보통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사고를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은 사고를 배척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질문의 지층 자체가 대답이 아닌 문학의 형성이 되어왔다는 용이한 상식을 상기할 것이다. 무엇이라고 할 만한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말문이 막혀본 이가 맛닥뜨리는 사실이다.

분명히 사실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덧없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덧없음의 사실이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빈 백지로부터 스스로를 출발시킨다는 점이야말로 문학을 생각할 때 우리의 손이 위치하는 첫 번째 지점이다. 그것은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읽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연구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도 문학은 그렇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과는 다른 면을 말했을 뿐이다.

뭘 말했다는 건가? 문학은 언제나 스스로를 그 어디로부터이든 핑계나가게 만드는 탄성의 곡률로부터 우리에게로 걸어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최초의 독서를 추억해보기라도 한다면 얘기가 빠르다.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 현실은 날아가버리고 만다. 우리의 몸이 용수철을 거꾸로 잡아당겼을 때처럼 잡아당겨졌기 때문이다. 모든 첫경험이 사로잡는 의미심장한 마력에서 문학은 있다. 무임승차와 야반도주가 환기하는 아찔한 백지상태의 두근거림처럼 어디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근대 이래로 문학은 자기 영역이 삭제되는 지점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확장해왔다. 그리고 그 빈 공동으로 해서 다시 주위를 빨아들이거나 틈새를 냈다. 과학이 그렇고, 자본이 그렇다. 사람들은 도처에서 여전히 떠돌고 있다. 문학이 사람들의 떠돌을 닮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문학만의 요새야 따로 있겠지만, 그 요새로부터도 문학은 자체 전복을 통해 새로운 피를 수혈하곤 하였다. 거리라는 말이 허락된

다면, 떨어진 거리란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한다. 그리고 추후의 반성을 가능케 한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해묵은 논쟁을 해집어 보자. 문학이 현실 변혁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학은 현실을 뛰어넘은 그 무엇,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생각은 사실은 같은 말이다. 사고는 추후에 온다. 문학은 우리의 현실 그것이다. 이 짧은 말을 또 하기 위해 이토록 긴 말을 돌아왔다.

문학은 현실을 보이콧한다. 문학, 현실, 보이콧. 보이콧한 방점엔 잡아당겨진 우리의 피로한 작은 몸이 애시당초 떠돌고 있다. 의아스럽겠지만 도처에 명도는 투명한 날파리들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여준다. 덧없음이 아름다운 까닭은 누군가의 꿈이 이곳과는 다른 언어로 말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만을 말하고 싶다. 여러분의 입술이 달짝이며 실생활에서 지금과는 다른 언어로 말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그야 공연히 여기다 세세코치 상술할 필요가 없다.

문학의 이름으로, 문학으로부터 모인 여기 우리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난한 문학회의 어제와 오늘의 이름으로, 주춤주춤 글을 실는 이 지면에 관하여 그 지면에 실릴 이 글이 이야기할 이하의 약소한 몇 문단이 다시 이 글이 기다린 순간이다. 내 구차한 낮가림을 무릅쓰고 익명의 여러분을 또 우리라고 부르며 비문체의 글을 이어 역지를 쓴 것도 딴 뜻이 아니다. 삭제된, 혹은 삭제될 누군가의 슬한 꿈들을 우리라고 부른 돌이켜 죄를 묻는다면 면목은 없다.

다시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학은 현실을 보이콧한다. 우리의 지면은 고작 시작만을 책임질 따름이다. 연주로 치자면 계럴라 콘서트와 닮았을 거다. 불협화음은 무대의 자랑일 거다. 비아냥이 아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주변 환경에 관심이 투철해서들 그럴 거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학은 특기가 아니다. 어찌면 작품도 아니다. 문학과는 접촉은 우리를 자기자신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만들고 틈새를 낸다. 그러면 그 사이로 현실과 타자가 흘러든다. 이 육신한 틈입을 문학의 이름으로 부르려 한다. 그 뿐이다. 그 뿐이 아니다.

한 세내기의 목소리(를 내자면)

정용경

저는 2007년 3월 연세대학교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수업들, 그리고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도 없을 정도의 온갖 낯설고 당혹스러운 자유들에 휩쓸려 하루하루를 마구마구 흘러보내는 중 한 달이 지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연세문화회라는 동아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3월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그 무렵에는 여기저기에 “총학”이니 “총여”니 하는, 통 알 수 없는 용어들끼리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나부꼈고, 각자 스스로의 주장을 펼쳐대는 벽보 비슷한 것들이 교내 여기저기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문학회 내에서도 그런 용어들을 담은 대화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게 새롭기만 해서 - 라는 핑계로 뒷집 지고 서서 그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문학회 내에서도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이야기는 곧 나름대로 꽤나 격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서부터 총학의 개정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까지 아우르는 여러 주제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왔고 저는 그 지해롭고 복잡한 논쟁의 바다 한복판에서 홀로 동둥 떠다니는 작고 단순 무식한 육지조가리 섬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아직 좀 많은 것을 헛갈려 하는 중이라 해도 분명 저 또한 이미 이 사회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들려 마땅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이 사태에 관한 제 의견과, 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 볼까 싶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는 세내기,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나 사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저 말고도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저 플래카드들은 왜 다는 거지? 학교 경관을 망칠 뿐인데” 라든가, “저렇게 서로 막 욕하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한데, 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고, 대개 그쯤에서 그칩니다. 혹자는 친한 선배 한두 명을 붙들고 늘어져서 설명을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이내 포기해 버립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 주는 선배들도 각자 나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고른 시선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세춘추를 보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세춘추의 기자 분들에게조차도 각자 자신이

선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사태에 대해 다른 의견과 지식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입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리저리 주워들다 보면 조각조각 모인 것을 분석해서 “내 의견”으로 종합해 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의견을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되는 정보수집의 과정이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서로 갈라지고 등 돌려 싸우는 두 개의 입장 중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즉 어떤 사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갖기 위해서는 사태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지식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정보원들이 각 입장에 대한 동등한 양의 지식을 제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 아니,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기에 - 웬만한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의견을 토대로 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고 저는 이 사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이 사태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이무리 훌륭한 정보원과 탁월한 판단력을 지녔다 해도, 그 어떤 사람도 완벽히 옳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들은 것만으로도, 작고 말랑말랑하지만 그런대로 제 “입장” 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감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이번 사태의 전말은 대충 이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3월 중순쯤 갑자기 회칙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은 1학기에 한 번 열리도록 되어 있는 확대 운영 위원회(이하 확운위)가 임시 회의로 바뀌고, 중앙 운영 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의결 기능이 총학생회(이하 총학)으로 넘어가고, 총학에 대한 탄핵 조항도 없어지고, 가장 많이 부각되어 있다시피 총여학생회(이하 총여)가 총학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총학이 한총련 등의 외부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이 개정안에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개정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연세춘추에 일방적으로 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첫째, 제안 자체부터 벌써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회장을 투표로 뽑을 당시의 회칙에 의하면, 투표로 뽑혔다고 결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개정안이라 해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정도에 어긋날 판에 이처럼 거창하고, 모든 교내 정채라고 해 둘시다)의 방식을 뒤엎는 것이나 다름없는 개정안을 함부로 공고하다시피 하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 그리고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회칙 개정안 내용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전교에 나뉜은 벽보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알 수 있듯이, 총학이 제안하는 개정안의 대부분은 교내 의사결정이나 예산 관리의 집행 같은 일들 - 말하자면 권력 - 을 모조리 총학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비논리적인 조항들을 모조리 싸잡아, 많은 남학생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총여를 총학 산하로 넣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얹어 투표 한번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당하지도 옳지도 않은 태도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총여의 존재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렇게 결론이 났기에 생긴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직 남존여비 사상이 적게나마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면이 없잖아 있고, 그런 면에서 남학생들 중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필요가 불쾌감을 누르기 때문에 저는 총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학의 산하에 들어가면 총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합니다).

처음 들어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나름의 입장을 세워 작은 목소리를 내 보았습니다. 저의 시야를 트이게 해 준 선배들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기회를 준 문학회 선배들에게 고맙습니다.

변신하는 순간의 세일러문을 노려라

활인(이중원)

애니메이션 『세일러문』 티비시리즈 오프닝곡 『달빛전설』이 흐르는 가운데 마당 중앙에는 교복을 입은 세 명의 여학생들이 서있고, 한쪽 구석에는 검은 망토를 걸치고 흰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반대편 구석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안절부절못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여학생 1 : (세일러복을 들어 보이며) 야, 옷이 이게 뭐꼬? 몸에 딱 달라붙고 치마도 문디 짧다. 팬티 보일 것 같다 아이가.

여학생 2 :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몸매가 좀 되잖나. 후질근한 교복보다는 낫네. 대학 왔으니 이 정도는 입어 줘야 하는가 보지. 남자애들이 뻥 가겠는걸.

여학생 3 : 그래도 난 대학에서까지 정해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학생 2 :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입어. 딴 애들도 다 입을 건데 어쩔 거야. 혼자 뛰어서 좋을 것 없잖아. (교복 상의의 단추를 푼다)

여학생 1, 3 : (망설이다 단추를 풀기 시작한다)

남학생 1 : (자판을 두드리며 음흉한 목소리로) 남아, 클로즈업 좀 해주삼.

가면남 : (마우스를 움직이며) ㅎㅎ, 좋아, 나의 충실한 개들이여,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이를 먹여주지. 마음껏 쳐먹어라.

마녀 복장을 여자와 생활한복을 입은 남자가 마당으로 뛰어든다.

마녀 : (다급한 목소리로) 여기에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옷을 입으시고 피하세요.

여학생들 : (옷을 챙겨 입으며) 까아악! (이 때 옷을 얼마만큼 벗었다 입느냐는 순전히 배우들의 섹시함 정도에 달려 있다)

자존긋거리 장단이 들어가며 마당이 분주해진다. 여학생들은 우왕좌왕 퇴장하고,

마녀와 생활한복 남자는 껌껌춤과 화장무로 마당 곳곳을 뒤흔다. 남자 1은 자판을 두들기며 발정 난 수캐처럼 날뛰다 급기야 자판을 뽑아 들어 선을 목에 감으며 괴성을 질러댄다.

장단이 굿거리로 바뀌자 팔짱을 끼고 있던 가면남이 채찍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선다. 채찍을 휘두르며 양쪽의 마녀와 생활한복 남자를 위협하는 춤을 춘다. 마녀와 생활한복 남자는 몇 차례 채찍을 맞고는 쓰러진다. 남자 1이 마우스로 엮은 줄로 마녀를 결박한다. 생활한복 남자는 가면남에 의해 마당 바깥으로 쫓겨난다.

장단이 삼채가락으로 바뀌고 가면남은 호탕하게 웃으며 마당의 외곽을 따라 팔을 벌리고 씬 없이 자반과 연풍대를 돈다. 얼굴에 아무 형태도 없는 흰색의 동일한 가면을 쓴 432명의 남자들이 저마다 데스크탑 본체,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CD 묶음, 5.25인치 디스켓 묶음, 3.5인치 디스켓 묶음, 노트북, 화상캠 등을 들고 차례로 등장하여, 결박된 마녀 주위를 또아리 모양을 만들어 빙글빙글 돈다.

점차 장단이 빨라지며 휘모리로 넘어간다. 가면남은 연풍대를 돌다가 지쳤는지 바닥에 드러누워 버린다. 드러누워서도 계속 웃음을 멈추지 않는다.

불현듯 세일러문 티비시리즈 오프닝곡 「달빛전설」이 다시 흐르며 장단이 끊긴다. 와이어에 매달린 세일러복을 입고 미소녀 가면을 쓴 이가 공중을 날아다닌다. 남자들이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보려고 애쓴다.

남자들 : 와아아, 팬티 보인다. 하얀 색이다.

갑자기 세일러복을 입은 이의 가면이 벗겨진다. 아까의 생활한복 남자였다. 음악이 꺼지고 마당 안과 밖의 모든 이들의 생명활동이 한순간 모두 정지되고 와이어에 매달린 '그것'만이 대롱대롱 흔들린다. 곧이어 남자들은 끔찍한 악몽을 부정하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열을 맞추어 큰걸음으로 퇴장한다. 세일러복 남자가 와이어에서 내려와 가면남 쪽으로 다가가자, 웃음을 멈춘 가면남은 황급히 채찍을 찾는다.

이때 세 명의 여학생들이 등장하여 채찍을 먼저 손에 쥔다. 세일러복에 의해 결박에서 풀려난 마녀와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인 가면남은 몸을 벌벌 떨면서 주저앉는다.

가면남 :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해해, '실수'였어, '실수'. 고의가 아니었다고, 제발 한번만 봐주삼.

세일러복 남자 : (짐짓 단호한 어투로)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오다오다오다오……! (가면남의 탈을 벗겨버린다)

가면남 : 으아악, 안 돼. 너네들 죽도록 미워할께. (추악한 얼굴을 가리며 퇴장)

세일러복 남자 : (매우 뜬금없이) 자, 우리 악당도 쫓아내었으니, 이제 화합의 세상을 열자는 의미에서 춤이나 한 판 추고 가는 것이 어떠하냐?

일동 : (역시 난데없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거, 좋은 말이다.

(불림으로) 니멋대로 세계상식, 독재총학 물렸거라.

(※ 이 불림은 본 극이 연극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음을 극명히 그리고 처절하게 알리는 동시에, 당신네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연극적인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도록 기능함)

장단은 허튼끼타령으로. 가면을 벗은 433명의 남자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와 마녀, 세일러복 남자, 여학생들과 같이 춤을 춘다. 왜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고 있는지는 하느님께서도 모르실 것이다. 춤이 끝나면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뿔뿔이 흩어지며 제각기 퇴장한다. 그러나 몇 명의 남자들은 퇴장하지 않고 마당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무언가를 상영한다. 관객들 중 짧은 치마를 입었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영상이다. 하지만 설치하는 동안 관객들도 모두 가버려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는다. 남자들도 스크린과 소품들을 모두 놔둔 채 가버린다. 이어지는 Y대 비정규직 노동자 아주머니의 절규. "이놈들 그냥 냅두고 가면 누가 치우라꼬!"

※ 본 극본은 세계 최대의 저질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 유통회사 'BYUNTAI(변타이)'와 계약을 진행하는 중이므로 불림은 정중히 사절. 그러나 무단 도용, 게재, 복제는 적당히 환영. 퍼갈 시에만 댓글 필수(어디다 달라는 거야?). 정정. 퍼가거나 내용에 불만 있으면 연락 바람. 010-6557-8311 / hyrona@hanmail.net

펴낸곳	연세문학회
인쇄처	중앙문화사
편 집	이중원
발행일	2007년 4월 13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대강당 109호 연세문학회
홈페이지	http://roompen.co.kr
후 원	연세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연세문학회 2007 봄 비정기 문집 봄, 파르티잔